

상반기 염료 생산 7.3% 증가

1~6월 2만525톤 ... 반응성염료 5985톤으로 12.7% 늘어

올 상반기 국내 염료 생산실적이 92년 상반기보다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93년 상반기(1~6월) 국내 염료생산실적은 92년 상반기(1~6월) 1만9128톤 대비 7.3% 증가한 2만525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염료생산을 품목별로 보면 가장 높은 구성비인 29.2%를 차지하고 있는 반응성염료가 천연섬유의 수요증가 추세에 따라 그 사용량이 늘어 92년 상반기대비 12.7% 증가한 5985톤을 생산했다.

한편, 반응성염료의 국산화율이 수량기준 55% 이상이지만, 금액기준은 50%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염료 생산 실적 (단위 : M/T, %)				
구 분	1992.1~6	1993.1~6	증감률	구성비
직접 염료	1,961	1,761	▽10.2	8.6
산성 염료	3,360	2,976	▽11.4	14.5
염기성염료	1,406	1,393	▽0.9	6.8
매염 염료	81	134	65.4	0.7
건염 염료	-	23	-	0.1
유용 염료	210	229	9.0	1.1
황화 염료	1,269	1,602	26.2	7.8
형광 염료	1,781	2,189	22.9	10.7
반응성염료	5,310	5,985	12.7	29.2
분산 염료	3,676	4,161	13.2	20.3
기타 염료	76	72	▽4.1	0.4
합 계	19,128	20,525	7.3	100

생산 구성비가 20.3%인 분산염료는 주 용도인 폴리에스테르 섬유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힘입어 92년 상반기대비 13.2% 증가한 4161톤을 생산했다.

국내 총 분산염료 시장의 45%(금액기준)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렉키는 92년 상반기대비 5~6% 정도 증가한 1747톤을 생산했고 일부는 다른 생산기업으로부터 OEM방식으로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모 염색에 사용되는 매염염료는 올 상반기 생산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65.4%를 기록, 134톤을 생산했다. 아직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점차 수입대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황화염료는 올 상반기 1602톤을 생산 92년 동기대비 26.2% 증가했고, 형광염료는 2189톤을 생산, 92년 동기 대비 2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고품질의 형광염료시장은 일본 수입품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견·나일론 섬유에 사용되는 산성염료는 예년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 수요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올 상반기는 92년 동기대비 11.4% 감소한 2976톤을 생산했고, 반응성염료와 용도는 같으나 견뢰도 등에서 저조한 물성을 보이고 있는 직접염료는 염료 고급화 경향에 따라 수요량이 감소 92년 상반기대비 10.2% 감소한 1761톤을 생산했다.

<화학저널 1993/9/13>